

Style

조선일보

MAY 2022 vol.237



RALPH LAUREN

NEW STORE OPENING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TEL. 02 3467 6560

SUBLIMAGE

L'ESSENCE FONDAMENTALE YEUX
AND L'ESSENCE FONDAMENTALE

NEW 레쌍스 풍다멘탈 아이 & 레쌍스 풍다멘탈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고 힘을 강화하는 에센셜 듀오

샤넬은 아이코닉 세럼,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을 이제 탄력이 되살아난 아름다운 눈매를 위한 아이 세럼으로 선보입니다. 피부 활력을 충전하는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와 피부를 강화하는 솔리다고 추출물을 함유한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아이는 눈가 피부의 밀도와 탄력을 개선하여 더욱 또렷해 보이는 눈매로 바꾸어 줍니다. 속눈썹과 눈썹은 더욱 건강해지고 다크서클도 완화되어 건강한 광채가 살아납니다.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과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아이, 두 가지 세럼으로 페이스 & 눈가를 모두 케어해보세요.



CHANEL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38

BIOCERAMIC
MOONSWATCH
COLLECTION

MISSION TO THE SUN



Ω
OMEGA
×
swatch 

Only available in selected Swatch Stores

BIOCERAMIC
MOONSWATCH
COLLECTION

MISSION TO JUPITER



Ω
OMEGA
×
swatch 

Only available in selected Swatch Stores

문의. 02 3480 0104



DIOR

GEM DIOR COLLECTION
Pink gold, diamonds and ornamental stones.





랄프 로렌 컬렉션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친화적인 아시아 문화의 전통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 특히 이번 컬렉션의 주를 이루는 이카트 (ikat)는 10세기 초부터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문화에 소중한 역사적 상징과 다양한 기원을 둔 기법으로, 유니크한 패턴과 컬러가 튜, 팬츠, 드레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빛을 발한다. 문의 02-3467-6560



12

- 16 **DELIGHTFUL & MASTERFUL EXUBERANCE** 대부분의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이 그렇지만 특히 래리 피트먼(Lari Pittman) 같은 작가가 빛어내는 섬세한 회화의 세계는 정말이지 눈을 제대로 맞대고 직관할 필요가 있다. 조수 한 명 두지 않고 밀그림도 없이 그 대담하고도 정교한 구성을 소화해내는 래리 피트먼의 '수작업은 몹시 경이로웠다. 그의 작업 세계처럼 래리 피트먼이라는 작가 자체도 몸소 마주할 때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지난 3월, 서울 이태원의 아담한 건물로 확장 이전한 글로벌 갤러리 리만머핀 (Lehmann Maupin) 서울의 첫 전사를 수놓은 주인공으로서 한국을 찾은 래리 피트먼과 영감 만발한 대화를 나눴다.
- 18 **SPACE IN FOCUS** 날이 갈수록 트렌디한 감각과 개성을 내세운 공간이 생겨나는 서울의 풍경을 보다 다채롭게 수놓을 '뉴 스페이스'들이 눈길을 끈다. 신선한 감각의 갤러리인 프롬프트 프로젝트 (Prompt Project)가 양재천 인근에 양중맞은 카페까지 결집인 복합 문화 공간을 선보였고, 세련된 '북 살롱' 문화에 앞장서온 애슬린 (Assouline)이 서울 진출 10주년을 맞아 세 단장을 끝냈으며, 단 순환의 미학을 매력적으로 풀어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GBH가 서라미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첫 플래그십 매장의 문을 열었다.
- 19 **PICK OF THE SPRING** 미학의 절정, 예술적 터치가 깃든 화려한 봄날의 오보제.
- 20 **COLOR EFFECT** 테크니컬한 면모를 넘어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포인트 액세서리가 될 컬러 워치.
- 21 **DAILY CHIC** 간결함과 우아함의 미학,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모던 밴드 링 셀렉션.
- 22 **GIFT IDEAS**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계절 5월, 감도 높은 취향을 지닌 소중한 이들을 위한 아름답고 특별한 기프트 셀렉션.
- 38 **STEP IN STYLE** 더 가볍고 쿨해진 발걸음을 위한 브랜드 뉴 로퍼.
- 39 **FRESH LADIES** 클래식한 룩에 빠질 수 없는 펜디의 파파루 아이씨 유 백이 색다른 변신으로 우리를 즐겁게 한다. 부드러운 패딩 니파가 죽으로 기존의 시그너처 스타일을 그대로 간직한 채 더 작아진 모습과 파스텔, 비비드한 컬러 등 여름을 담은 컬러 팔레트로 유행함을 표현했다.
- 40 **FRIENDS** 다시 꿈꿔보는 친구들과의 멋진 여름날. 2022 프리 서머 룩.
- 48 **ACE OF BASE** 말차력과 커버력, 지속력은 물론 스킨케어 효과와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한 뉴 쿠션 리스트.
- 49 **SUMMER GARDEN** 뿌리는 것만으로도 상쾌함과 시원한 기분을 즐길 수 있는 시트러스 향수.
- 50 **EDITOR'S PICK** 싱그러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신뜻하고 촉촉한 뷰티템 13.

Style 조선일보

Issue.237 May 202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사비 분해, 재판 | 리은 인세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스퀘어 1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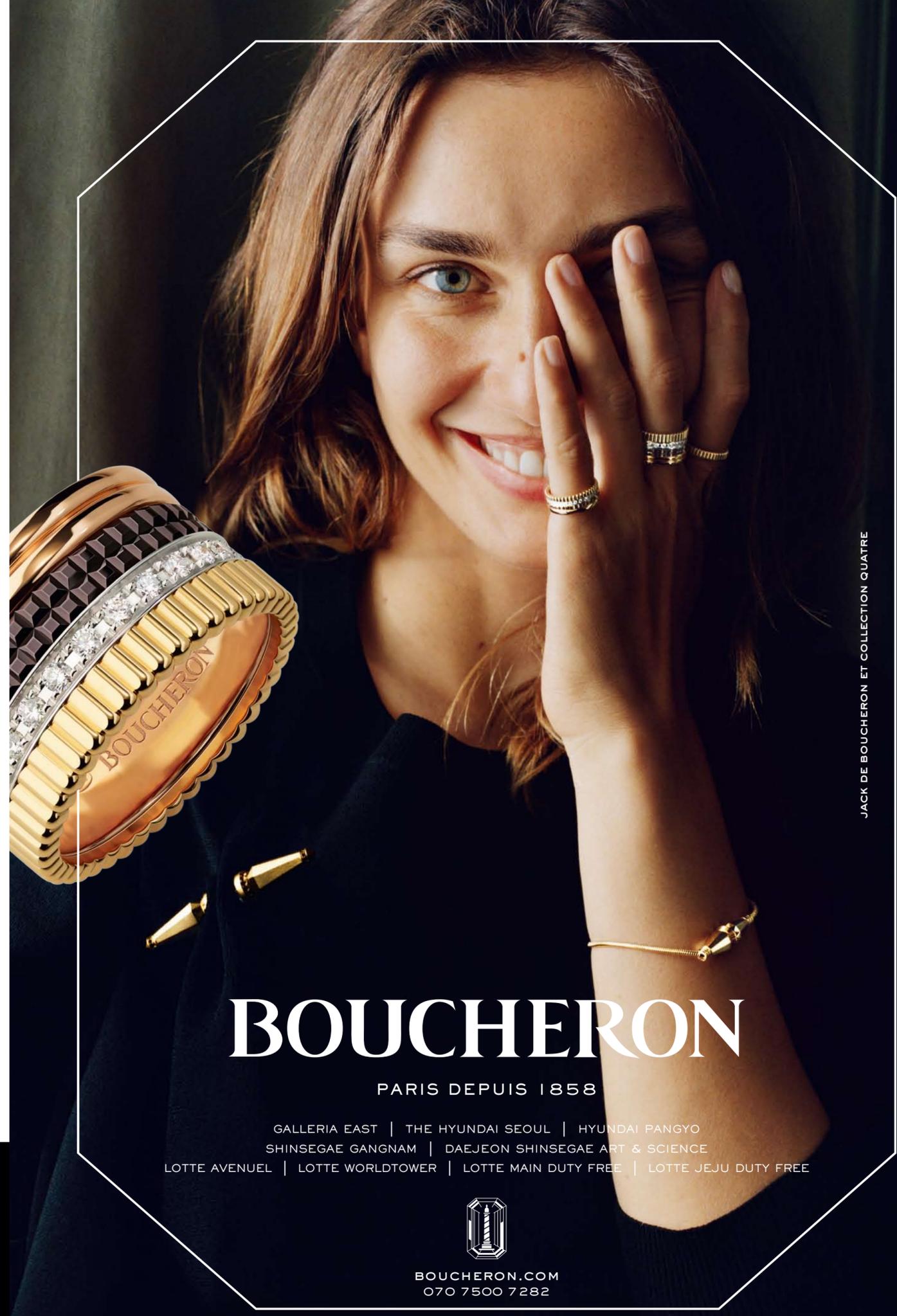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JACK DE BOUCHERON ET COLLECTION QUATRE



리본에서 모티브를 따온 우아하고 아름다운 링 두 가지. (왼쪽부터 차례대로) **소메 주드 리앙 링** 사랑의 약속을 상징하는 매듭을 모티브로 한 링으로 로즈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우아함을 더했다. 7백만원, 문의 02-3442-3359. **타파니노 다이아몬드 링** 뉴욕 거리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체인 링크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리본 모티브가 인상적인 링으로 18K 로즈 골드 에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MAGIC of RIBBON

빛나는 시간

이번 워치스 & 원더스를 통해 까르띠에에는 신제품으로 주얼리와 워치메이커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쿠상 드 까르띠에' 컬렉션이 그 주인공. 섬세한 격자무늬를 새긴 쿤스 형태 케이스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혹은 유색 보석을 섬세하게 세팅해 극강의 아름다움을 발휘하는 이 매력적인 타임피스에는 매종의 메인 이브닝 워치로서 라운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1566-7277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아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RUN, RUN, RUN

패션의 계절은 발끝부터 찾아온다고 했던가. 알렉산더 맥퀸에서 2022 S/S 컬렉션 쇼를 위해 새로운 슈즈 라인 스포르트 러너를 선보인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속 가능한 크롭프리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했으며, 하우스 시그니처인 힐 카운터가 특징이다. 부드럽고 가벼운 언더솔은 고무 소재를 사용해 편안하고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한다. 87만2천원. 문의 02-6905-3472



브랜드의 상징이자 아이콘이 된 로고 버클을 더한 세 가지 색.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안토니오 로페즈의 그래픽을 핸드메이드로 한 밌 한 밌 새겨 넣은 펀디의 아이코닉한 미디엄 바게트 백 7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14-0662. 토즈의 T 로고 버클이 매력적인 카프레타 소재의 토즈 T 타임리스 백 2백50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골드 컬러의 V 로고 버클로 인팩트를 준 퍼플 컬러 열쇠고리 소재의 스타더 사인 백 3백40만원 **발렌티노**는 **가브리엘라**. 문의 02-2051-4653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STAY CHIC



비누의 재해석



환경을 생각하는 건 물론 훌륭한 클렌징 기능뿐 아니라 사용 시 감각적인 향과 라우얼까지 선사하는 비누. (왼쪽부터 차례대로) **뽀에 사뮈 뽀호르 비버리** 60일간 엄격하고 철저한 저온 숙성 과정을 거쳐 총출하고 정교한 마이크로 버블 폼을 형성해 세안 시 피부를 부드럽고 깨끗하게 클렌징하는 페이스용 비누 100g 14만9천원. 문의 02-310-5025 **오피신 유나비셀** **발리 루브르 컬렉션 시뮬 수베랑**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세계 명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대표 명작들의 향기를 조형해 입혀 프리미엄급 향을 선사하는 보디용 비누 150g 5만8천원. 문의 1544-5114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언커머셜: 한국 상업사진, 1984년 이후>展



대중과의 접점을 바탕으로 문화의 한 축을 감각적으로 수놓아온 한국 상업사진의 자취를 폭넓게 담은 기획전. 서울 광화문에 자리한 일민미술관에서 지난 4월 8일 막을 올린 <언커머셜 (UNCOMMERCIAL): 한국 상업사진, 1984년 이후>展은 소비사회 속 모험 향수를 복돋는 이미지의 향연이다. 20세기 후반에 거미본 경제성장 의 길을 걸은 한국에서 상업 사진이 일궈낸 성과를 조명하고 그 변화의 과정을 짚어

본 이 전시는 구본창, 김중만, 신석해, 김희준 등 이러한 흐름을 이끈 사진가 29을 통해 우리나라 '커머셜 사진'의 고유한 의미를 탐구하고 과연 오늘날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새롭게 바라본다. 최신 장비와 기술을 겸비한 해외유학파 사진가들이 압권. 한 단계 도약하며 한국 상업사진의 질적 성장이 시작된 1980년대를 조명한 '상업사진의 뉴웨이브'(1전시실)를 위시해 1997년 외환 위기로 프랜차이즈, 독립 에이전시, 스튜디오 수가 늘어난 1990~2000년대를 패션계 중심으로 돌아본 '상업사진과 패션(2전시실)', 인터넷이 만연된 산업과 더불어 성장한 한국 대중문화의 결정적 순간을 장식한 작품을 소개한 '대중문화와 상업사진'(3전시실), 그리고 우리 나라 최초로 상업사진 스튜디오를 설립한 선구자 김한영(1924~2016) 아카이브 등의 색으로 나뉜다. 오는 6월 26일까지. 홈페이지 ilmin.org 글 **고재현**

for MY DEAR

소중한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좋은 5월. 감동적이고 섬세한 취향을 지닌 이들을 위한 선물로 프레드가 제안하는 기프트 셀렉션을 추천한다. 무한함과 영속성을 나타내는 램프 스퀘어가 컬렉션의 중심 모티브가 되어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샹스 인파니 컬렉션과 히트를 메인 모티브로 삼아 사랑의 찬미와 헌사를 담은 프러티 우먼 하트스톤 네크리스가 바로 그것.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주얼리로 사랑하는 이들과 즐거운 순간을 기념해보는 것이 아닐까. 샹스 인파니 러키 메탈 네크리스 5백77만원, 프러티 우먼 카탈리엔 네크리스 3백53만원. 문의 02-514-3721



LOVE POEM

사랑의 순간에 대한 사사를 담은 에스티 로더의 뷰티풀 매그놀리아 향수의 스토리를 이어갈 뉴 뷰티풀 매그놀리아 인텐스. 매그놀리아가 주축이 되어 강렬한 로맨스와 사랑에 대한 열정을 함으로 표현했다. 만다린 오일을 중심으로 바이올렛 리프 애플루트와 카카뎀 오일을 조합한 시트러스 노트로 상큼하게 시작하고, 아미시스와 장미가 조미료처럼 어우러진 플로럴 노트가 이어지며 매그놀리아 향을 한층 더 강화한다. 여기에 시더우드와 파출리, 비닐라 빈이 어우러진 차분한 텍스처가 반전을 이루며 짙은 여운을 남긴다. 50ml 13만2천원대. 문의 02-6971-3212



NEW ICON

뉴욕 동부의 이케스트리언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는 필프 로렌이 새롭게 파인 주얼리 컬렉션을 론칭했다. 새로운 주얼리 라인인 하우스를 상징하는 모티브 중 하나인 스타랩 디자인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다이아몬드와 로즈 골드 혹은 스틸링 실버와 조합해 도화적이고 우아한 실루엣을 이룬다. 단독으로 착용해도 좋고, 알고 섬세한 실루엣에 여러 피스를 레이어링해 착용해도 멋스럽다. 문의 02-3467-6660



신사의 품격

모던하고 깔끔한 인덱스, 버클로 오메가 로고를 새긴 브라운 레더 스트랩까지.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자아내는 이 타임피스는 30-T2 수동 와인딩 스텐 스텐 칼리버를 탑재한 1939 오메가 클래식 손목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크라운에 빈티지 오메가 로고를 새겼으며, 동형 사피어 크리스탈 뒷면의 다이얼은 Ag925 실버로 제작했고, 블루 핸즈와 디크 블루로 전자 처리한 마경이 특징이다. 우아한 남성성의 손목에서 빛나는 액세서리가 되어줄 것. 8백40만원. 문의 02-6905-3301

the saddler's spirit

브레이드 비케타 리더 벨트
가격 미정 **올로 로렌**.

다이에 아주로 캔버스 소재로 제작한 스퀘어 링
아일랜드 카터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마요즈 XS 스크린트
매년 12x18cm,
가격 미정 **롤렉스**.

토프 컬러 케이틀과 멜로
골드 버클을 조합한 호스텐 브레이슬릿
298880원 **호스텐**.

for him Selection

소프트한 뉴트럴 팔레트가 가장 빛을 발하는 계절, 5월.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리본을 혼합한 코튼과
가죽 배색이 돋보이는
맨즈 백팩, 35x48cm,
2백70만원대 **토즈**.

리본 색상 2인용이다 **핀니**.

리바이스 리더로 제작한 반차입 19만3천원 가나.

V 넥 울 스웨터 가격 미정 **보태가 배너**.

카프스킨 데일리 크롬
스니커즈 가격 미정
브루넬로 쿠차첼리.

가볍고 통기성 좋은 리본 소재로 제작한 아이메이
베스 슈즈 69만원 **로로 피아나**.

잠언트 홀로 PK 리본 209만원 **산토 로렌**.

황금 컬러 뉴트럴 케이틀 신발
1백90만원대 **롤렉스**.

리본 고쉬 맥시 쇼퍼 백,
60x40cm, 2백만원대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ASERBIAE 재킷
OVALLEE 일명정, 60만원
에디터 (이우미)

- 런던 02-514-0652
- 토즈 02-3438-6008
- 프래드 02-514-3721
- 벨루티 02-547-1895
- 가니 02-6911-0734
- 차처스 02-3218-5331
- 루이 비통 02-3432-1854
- 부세론 02-3479-6028
- 에르메스 02-542-6622
- 로로 피아나 02-546-0615
- 보태가 배너 02-3438-7682
- 올로 로렌 02-6004-0220
-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6905-3924
- 산토 로렌 02-6905-3914
- 브루넬로 쿠차첼리 02-3448-2931

무선 충전기 벨트
비앤시 피워
뱅크 70만원대
에르메스.

**RIVE GAUCHE
SAINT LAURENT**



BRING HER LOVE TO LIGHT

코튼 소재 니트 슬림 13만9천원 로렌 말프 로렌.

육각진 컷 크리스탈과 화이트 크리스탈로 장식한 말라나아 벨글 20만5천원 스와로브스키.

부드러운 렉스킨에 웨슬스카두 벨트 96만원 로로 피아나.

편안하고 실용적인 토즈 시본 블로퍼 1백만원대 토즈.

상스 인피니 체인 링 1백81만원 프레드.

카프 스킨 라이닝으로 포인트를 준 캔버스 소재 카산드라 미니 톱 핸들 백, 20x16cm, 3백만원대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상스 인피니 체인 링 1백81만원 프레드.

부드럽고 가벼운 촉감의 실드 스퀘어 스카프 90x90cm, 23만5천원 타이헴피거.

화이트 프레임 편드체 선글라스 60만원대 펜디.

실드와 자지 소재를 조합한 스카프 3백60만원대 에르메스.

안티로진 G 대립의 18K 옐로우 골드 링 189만원, 화이트 자르카리 링 89만원 모두 구찌.

스워로브스키의 클래식 아나스타시 열매, 용이 링

라페 조다악 엘브로이더리 다울 북트 스티플 백, 26.5x21cm, 4백50만원 디올.

램스킨 더블 스트랩 샌들 가격 미정 샤넬.

화이트 스몰 트라프고트 열매 가격 미정 펜디.

엘라스티 헤어 스크런치 18만원 막스마라 몽리르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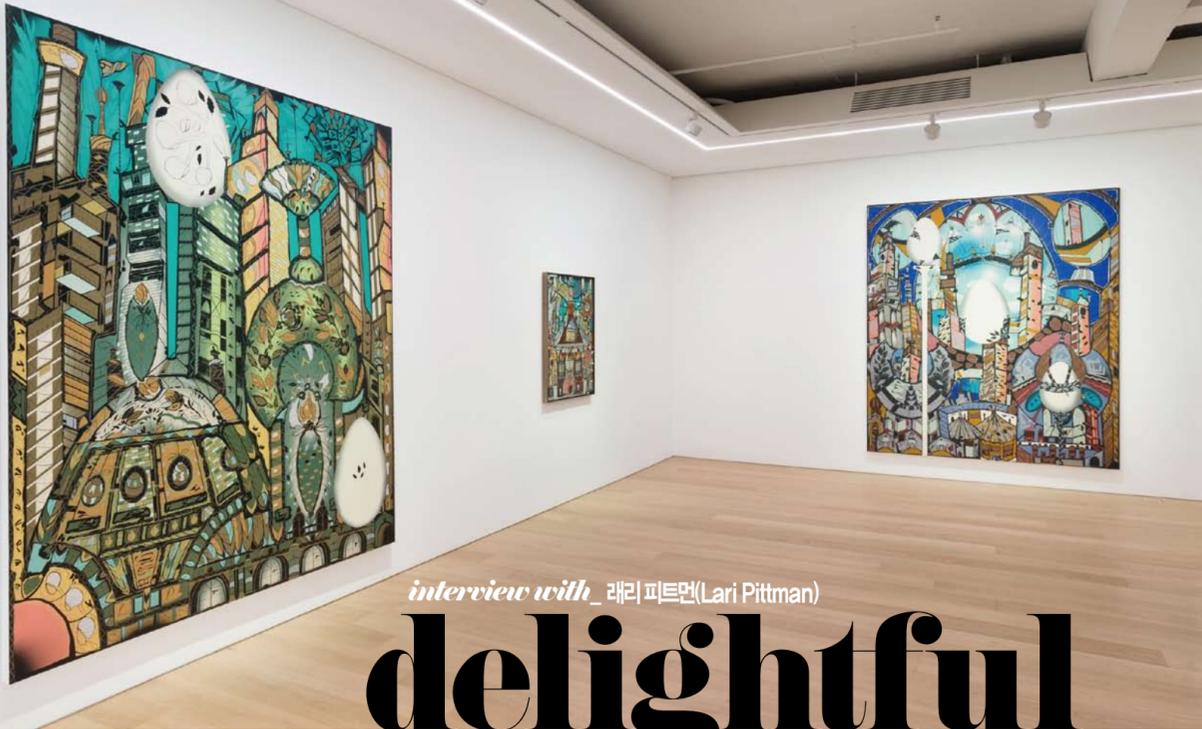
로렌 말프 로렌 02-772-3842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549-5741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로로 피아나 02-546-0615 토즈 02-3438-6008 타이헴피거 02-1544-3966 펜디 02-514-0652 에르메스 02-542-6622 샤넬 080-805-9628 셀윈드 02-549-6631 막스마라 02-511-3935 디올 02-3480-0104 샤넬 뷰티 080-805-9638 구찌 02-3452-1521 오메가 02-3467-8632 프레드 02-514-3721

for her Selection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와 실루엣으로 즐기는 내추럴 코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SWAROVSKI



interview with 래리 피트먼(Lari Pittman)

delightful & masterful exuberance

대부분의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이 그렇지만 특히 래리 피트먼(Lari Pittman) 같은 작가가 빚어내는 섬세한 회화의 세계는 정말이지 눈을 제대로 맞대고 '직관'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이미지 파일로만 접했을 때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복잡한 세계관의 소유자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을 좋아하는 필자에게도 조수 한 명 두지 않고 밀그림도 없이 그 대답하고도 정교한 구성을 소화해내는 래리 피트먼의 수작업은 몹시 경이로웠다. 그렇다고 그저 뛰어난 '작업 테크닉'만으로 그를 재단할 수는 없다. 눈을 황홀하게 하는 시각적 풍부함의 기저에는 마치 '혼돈 속 질서' 같은 구조미와 철학이 자리하고, 언뜻 곱한 듯하지만 볼수록 부담스럽지 않은 감성이 흐른다. 한마디로 볼매다. 게다가 그의 작업 세계처럼 '래리 피트먼'이라는 작가 자체도 몹소 마주할 때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지난 3월, 서울 이태원의 아담한 건물로 확장 이전한 글로벌 갤러리 리만머핀(Lehmann Maupin) 서울의 첫 전시를 수놓은 주인공으로서 한국을 찾은 래리 피트먼과 영감 말발한 대화를 나눴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팬데믹 시대로 접어들기 직전인 2019년 이른 가을, 필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여행을 갔다. 자주 그러하듯 당시에도 '나 홀로 미술관 투어'를 했는데, 방문 목록 중에는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자주 인용되는 래리 피트먼(Lari Pittman)의 대대적인 회고전이 열릴 예정이었던 해머 뮤지엄(Hammer Museum)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 차이로 그의 전시를 놓쳤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어버렸고, 래리 피트먼은 지구인들의 손발을 묶어버린 시기를 겪으면서 열심히 작업한 신작을 들고 서울을 찾아왔다. 먼 여정을 위해 부스터 샷을 포함해 네 차례의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70세의 작가는 한 번도 외본적 없었다는 서울에서의 첫 전시에 다분히 설렘이 느껴지는 눈빛을 발했다. 그런데 그 자신도 몰랐던 재미난 발견은 가로 6.5m나 되는 피트먼의 커다란 회화가 서울을 찾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1993년 서울에서 열린 화이트니 비엔날레 출품작으로 그가 AIDS 위기, 동성애와 젠더 문제 등 사회·정치적 이슈를 다룬 'A Decorated Chronology of Insistence and Resignation' 시리즈에 속하는 두 점이었다. 당시 피트먼은 미국 아트 신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40대 초반의 작가였는데,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니

말한 유아함에 무게를 두는 시대 감성에서 일부러 벗어난 듯한 장식적인 화풍과 동시대적인 주제 의식으로 비평가의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일찌감치 커밍아웃한 '퀴어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진솔하고 유쾌한 로스앤젤레스(발) 예술혼

피트먼이 태어난 로스앤젤레스는 개방성이 절로 연상되는 다문화 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196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래리 피트먼(1952년생)에게는 성 정체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많았을 것 같다고 짐작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피트먼의 부모가 상당히 진보적이고 포용적이었던 덕에 적어도 집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다고 한다.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와 이탈리아 혈통이 섞인 콜롬비아 출신의 어머니를 둔 그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함께 쓰면서 자랐는데,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라티노' DNA를 주로 품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일상 언어로는 스페인어가 편하고, 사유의 언어는 영어라고). 피트먼은 부친의 일 때문에 어린 시절 콜롬비아에서 살기도 했는데, 투마코(Tumaco)라는 작은 도시에서 아주 행복한 시기를 보냈다. 이곳에서 그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교육할 만한 환경을 찾다가 카탈루냐 출신의 다른 두 가정과 힘을 합쳐 교실 하나짜리 작은 학교를 만들었다(당시

사진을 보면 단 6명의 아이들이 해맑게 놀고 있다). "우리 선생님이 우연히도 화가였어요. 맞아요, 아마도 그렇게 (화가로서의) 영감을 처음 얻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답니다." 피트먼은 특유의 유쾌한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성 정체성으로 인한 고민에 빠졌고, 바깥세상에서 '호모포비아'도 경험했다. 그래도 그에게 깊은 상흔이 없는 이유에 대해 "우리 가족은 항상 제가 정상적이라고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예술 대학교인 칼라즈에 다니던 시절 페미니즘과 개념 미술을 접하면서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덕분이기도 했다. 그의 멘토인 페미니즘의 대모 미리엄 샤피로는 유익하게 남성인



3



4

그를 제자로 받아줬고, 평생의 반려자가 된 동창생 로이 다월(Roy Dowell)을 만나 당당히 커플로 인정받았으니 그가 칼라즈 시절을 오히려 '온실 속에서 보호받은 행운의 시기'라고 표현할 법도 하다. 이렇듯 라틴계 혈통으로서 2개 언어를 구사하면서 열려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 문화적 정체성을 피트먼은 자신의 주요한 '자산(asset)'이라고 여긴다. ("작품에서 드러나듯) 저는 색에 대해서도 장식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지적인 '개념'에도 관심을 지녀왔죠." 실제로 흔히 '테크랩 회화'라고도 일컬어질 정도로 장식적이고 표현적인 스타일을 지녔지만 그에게 있어서 작업의 출발점은 주로 단어나 개념이다. '장식 자체도 하나의 뚜렷한 개념이자 이념이자 철학적 요소인 것이다. "개인 취향으로 (장식적인) 회화를 한다기보다는 회화에 대한 사유를 통해 그런 장식적인 요소가 개념적인 정확성을 지닌다는 걸 깨달았고, 그것을 작품에 담으려고 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아와 문화를 표현하고 화풍을 발전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네 삶을 이끄는 용광로 같은 대도시에 대한 오마주 스스로의 묘사처럼 한 사람(연인)에게 충실한 모범생 같은 삶을 이어갔지만 젊은 피트먼에게 빈 구석은 있었다. 워낙 작업(회화)에 대한 열망도 컸던지라 그는 현대미술사에서 자신을 반영해볼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여성'과 '퀴어'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는 일생 일대의 충격적인 사건을 맞닥뜨린다. 1985년 여름, 자택에서 강도한테 총을 맞아 장기를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진 것



5



1은 5월 7일 리만머핀 서울에서 막을 내리는 래리 피트먼(Lari Pittman)의 《분투명함, 반투명함, 빛나는》에서는 '대도시에 대한 오마주'를 주제로 한 신작들을 선보였다. 2 올봄 서울 안국동에서 이태원으로 보강자리를 옮긴 리만머핀 서울의 건물 외관. 건축 사무소 에스오에이(SOA)가 레노베이션 작업을 맡았다. Courtesy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Photo by texture on texture. 3 자신의 작품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래리 피트먼. Photo by Brian Guido 4 Lari Pittman, 'Compassion (Memento Mori)' (1985). Acrylic and oil on gourd, 21.6 x 47 x 22.9cm, Collection of Andrew Schwartz, Los Angeles. 5 미국 L.A. 해머 뮤지엄(Hammer Museum)에서 2019년 9월 말부터 3개월가량 진행한 피트먼 회고전 (Lari Pittm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hoto by SY Ko 6 해머 뮤지엄에서 개최된 피트먼 전시 풍경. Photo by Jeff McLane. 7 어린 시절, 회화에 처음 눈을 뜬 시골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피트먼의 기억'. © Lari Pittman. 8 Lari Pittman, 'The New Republic(1985) (detail)', Oil and acrylic on wood, 203.2 x 208.3cm. Orange County Museum of Art, Santa Ana, California. Gift of Samuel and Pamela Goldstein, Laguna Beach, California. 작가의 몸을 관통한 총기 사건의 여파로도 봤듯 '대장'을 그려 넣은 작품. 9 1993년 화이트니 비엔날레 서울 출품작. Lari Pittman, 'Untitled #1 (A Decorated Chronology of Insistence and Resignation)'(1992), Acrylic and enamel on mahogany, Four panels, 243.8 x 650.2cm overall, The Rachel and Jean-Pierre Lehmann Collection, Photo by Patrick Goetelen. ※ 1, 3~4, 8~9번 이미지 © Lari Pittman, Courtesy Regen Projects, Los Angeles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and Seoul.

이다. 몇 차례 수술을 거쳤음에도 당시의 상처가 아직도 물리적인 고통을 줄 만큼 중상을 입었고, 심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트먼에게 오히려 작업에서도 인생에서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됐다.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대로 가리앉아 의사를 하든지, 아니면 살아남든지 할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회복 탄력성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됐죠." 죽을 고비를 넘긴 피트먼은 작업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일궈낸다. 기존에는 추상적 전통을 장식적으로 변용하는 느낌의 작업을 했다면 남근을 연상시키는 조롱박에 그림과 단어를 적어 넣은 작품('메멘토 모리(Memento Mori)')처럼 보다 노골적이고 퀴어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직설적이어도 좋을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후 자신만의 스타일과 메시지가 뚜렷해진 피트먼은 여러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초청을 받으며 전성기를 맞게 된다.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제2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평론이 존재할 만큼 피트먼의 요즘 행보는 의미 있는 변화와 완숙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L.A. 미술의 전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동시대의 역사화'라고 칭해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건 그의 작업이 폭력적인 현실과 잔인함, 트라우마를 다루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품

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 전시에서 '대도시에 대한 오마주'를 주제로 선보인 신작들은 그러한 궁정의 면모를 드러내듯 한층 밝으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뽐낸다. 욕망과 적의와 애증이 들끓는 용광로에 비유되곤 하지만 그는 L.A. 같은 대도시가 지닌 활력과 역동성, 밀도를 사랑한다고 한다. 신작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공룡분묘는 누가 봐도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느껴지는 '알(egg)'의 존재인데, 알의 진화를 암시하는 듯한 전시 제목처럼 '불투명함, 반투명함, 빛나는' 단계를 보여준다. 불투명함 알의 내부에서 투명도가 살짝 더해진 알의 바깥, 그리고 18세기 건축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기념비들과 나란히 하며 투명함 빛을 발하는 단계별 진화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래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코로나를 도구화하는 이들이 있어요. 전 우리 삶에 드리는 멜랑콜리를 끄집어내 반전시키고 싶어요. 바로 '알'이 등장하는 이유죠."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자라났다고 말하는 피트먼에게 알은 도시에 '여성성'을 불어 넣어주는 은유적 존재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도 있겠다. '현대의 화가는 무엇보다 도시와 그 거주자들을 그린다고 했는데, 결국 피트먼은 우리네 명동 영혼을 위로하는 창조적 선물을 건네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글 코성민

날이 갈수록 트렌디한 감각과 개성을 내세운 공간이 생겨나는 서울의 풍경을 보다 다채롭게 수놓을 '뉴 스페이스'들이 눈길을 끈다. 신선한 감각의 갤러리인 프롬프트 프로젝트(Prompt Project)가 양재천 인근에 양중맞은 카페까지 결집인 복합 문화 공간을 선보였고, 세련된 '북 살롱' 문화에 앞장서온 예술인(Assouline)이 서울 진출 10주년을 맞이해 새 단장을 끝냈으며, 종이봉투만 봐도 느껴지는 단순함의 미학을 매력적으로 풀어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GBH가 서래마을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첫 플래그십 매장의 문을 열었다.



#Prompt Project+PEEK Café_양재천의 '뉴' 컬처 스페이스
 근사한 외관 비워 이가자! 한 카페가 즐비한 서울 양재천 인근에 여유가 느껴지는 공간 구성이 인상적인 현대미술 갤러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차세대 아티스트들을 위한 창작 인큐베이팅 플랫폼이자 참신한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을 표방하는 프롬프트 프로젝트(Prompt Project), 감각적인 리빙 편집 브랜드인 에이치피씨(H.P.C)에서 선보인 이 갤러리는 지하 1층과 지상 2, 3층을 전시 공간으로 두고 있는데, 기존 건물의 골조를 살린 실용적인 디자인과 낙후하면 서도 미니멀한 분위기의 조화가 돋보인다. 1층에는 PEEK이라는 명칭의 이따금 카페가 위치하며, 곳곳에 예술과 디자인 사적이 함께 자리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더해준다. 지난 4월 말 문을 연 프롬프트 갤러리의 개관전은 박미나, 정희민, 이은우 등 3인 작가를 역

1 양재천 인근 비워 이가자! 한 카페가 즐비한 서울 양재천 인근에 터를 잡은 현대미술 갤러리 프롬프트 프로젝트(Prompt Project). 프롬프트 프로젝트의 개관전에서는 2, 3층과 더불어 지하에 걸린 박미나, 정희민, 이은우 등 동시대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 무대를 선보인다. 2 지난 4월 21일부터 시작한 프롬프트 프로젝트의 개관전은 박미나, 정희민, 이은우 등 3인 작가를 흥미롭게 엮은 기획전 《Nostalgia through Noise》. 3 음악과 미술을 아우르는 색연, 리듬(윤음), 크레(물음) 같은 순수 조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9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4 갤러리 건물 1층에는 아트와 디자인 사적을 접할 수 있는 이따금 카페 PEEK가 자리한다. 1~4번 이미지 Photo by SY Ko



#예술인 서울 서울 론칭 10주년 기념 리뉴얼 오픈
 패션, 디자인, 럭셔리 브랜드 북, 예술 서적 등과 더불어 운치 있는 스낵 문화도 즐길 수 있는 프랑스 '북 살롱' 브랜드이자 럭셔리 퍼블리셔 예술인(Assouline), 10년 전, 도산공원 근처에 예술인의 아시아 최초 플래그십 매장으로 자리 잡은 예술인 서울은 최근 재단장을 거쳐 새로 문을 열었다. 원래 지하에 있던 공간이 1층으로 올라오면서 보다 접근성이 있는 공간을 꾸미는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칵테일 라운지 바인 '스완스 바(SWANS Bar)'다. 런던 피카딜리에 위치한 매점 예술인 런던에서 문헌한 칵테일 바로, 유유자적 물 위에 떠 다니는 백조처럼 문화 예술과 아우러진 여유로운 일상을 즐긴다는 뜻을 품고 있다. 1994년 파리에서 탄생한 예술인은 문화 예술적 감성을 공유한다는 비전 아래 관련 분야의 특별한 아티스트 등 1천7백 종의 다채로운 사적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양초, 노트 같은 감각적인 라이브러리 오브제를 만들어왔다. 특히 주얼리, 미술, 건축, 자동차 등의 주제를 이루는 'Ultimate Collection' 같은 한정판 시리즈의 경우엔 각 페이지에 장인의 독특한 각인을 새겼으며, 최고의 종이를 사용해 수작업으로 재현하고 인쇄하는 명품으로 여겨진다. 이번 리뉴얼 오픈을 계기로 예술인에서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스토리텔링을 결집한 개인 서가(private library)를 제안하는 '예술인 큐레이티드 라이브러리'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11 현대 행사 문화 10주년 이벤트 문의 02-517-0316

1 프랑스의 럭셔리 퍼블리셔이자 북 살롱으로 유명한 예술인(Assouline)이 서울 도산공원 인근에 플래그십 매장을 연 지도 벌써 10년이 됐다. 예술인 서울은 지난 4월 말 오픈 10주년을 맞이해 재단장을 거쳐 새로운 공간을 선보였다. 2 원래 지하였던 예술인 서울은 지상 1층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매점 예술인 런던에서 문헌한 칵테일 라운지 바인 '스완스 바(SWANS Bar)'를 새로 열었다. 예술, 패션, 라이프스타일 분야를 아우르는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서적, 양초, 노트 같은 오브제도 접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원하는 스토리텔링을 결집한 개인 라이브러리를 제안하는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GBH 플래그십 서초 실용의 미학으로 채우는 일상
 실용성과 세련된 단선미의 인상적인 조화로 편중을 꾸준히 넓혀온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GBH가 1호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다. 지난 4월 말, 서울 서초구 내반역 인근에 지어진 환상 외벽의 이따금 건물에 들어선 GBH 플래그십 매장은 3층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캠페인 프로젝트 전시와 신상품의 큐레이션을 접할 수 있는 GBH 프로젝트(1층), 기본에 충실한 '타일러스' 디자인의 에페탈(어덜트/키즈), 물건의 본질적인 쓰임새에 집중하는 홈 제품, 안전하고 순한 성분의 코즈메틱 등 3개 카테고리를 이루는 GBH SHOP(2층), 프라이빗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VIP 라운지(3층)다. 일상을 채우는 물건을 만든다는 디자인 철학을 추구해온 브랜드답게 병원이나 대형 마트에서 쓰이는 집기들의 실용적인 이름다움에 영감받아 매장을 설계했으며 이 같은 콘셉트를 바탕으로 침대, 카트 등 기능적 초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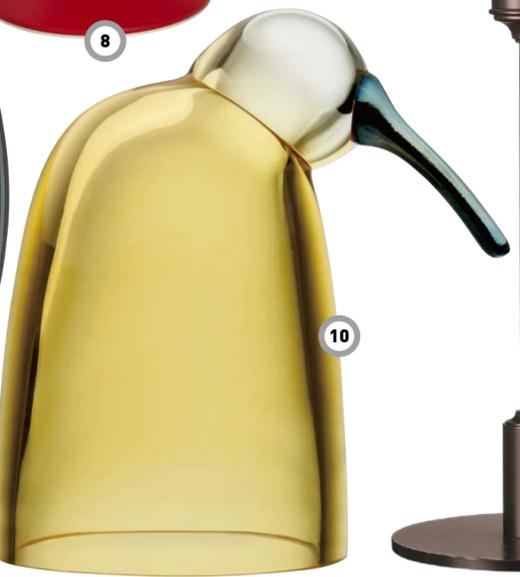


1 근대적이기는 실용적인 이름다움에 내세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GBH의 플래그십 매장이 얼마 전 서울 서초동에 들어섰다. 내방역과 가까운 이 매장은 병원이나 대형 마트에서 쓰이는 집기들의 실용 미학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다. 2 GBH는 온라인 판매로써 꽤 유명한 타일러스(어덜트/키즈)의 의류로, 이번에 처음으로 전체 건물을 이루는 오픈리 매장을 냈다. 큐레이션 감각을 불어넣은 1층 프로젝트 공간부터 세련된 패턴을 갖춘 2층 GBH SHOP, 그리고 3층에는 프라이빗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VIP 라운지를 두고 있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2길 1 현대 전시 GBH 프로젝트(1층) 'Chill Orange' 제품 라인 홈페이지 www.gbh.kr

pick of the Spring

미학의 절정, 예술적 치치가 가득 화사한 봄날의 오브제.



'오보 타오'의 유쾌한 호기심 컬렉션 중 버드하우스 블랙이트 포스트, 50x70cm, 14년4월14일 이베라, 문의 02-749-2022 슈트룸을 재현할 때 사용하는 사야나무와 파타나 줄기가 돋보이는 레드 데테일이 특징인 시각 트레이 1백20인원 벨루타, 문의 02-547-1895 아 르네 야 셴이 1939년 디자인한 오리지 모델의 디자인을 이어가는 우아한 스테이션 테이블 워치 17년7월14일 이노베이션, 문의 070-7423-6738 생생한 컬러감과 섬세한 디테일,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동물을 형상화한 베이스, 파우너리스토콜라스 by 하이에마 에-밀 헤드 가 격 미정 바카라, 문의 02-3448-3778 화사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컬러 베네치아 셴이 론보이는 카자크 쿠션, 부드러운 실크와 캔버스를 조합해 제작했다, 90인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빈티지 감성의 화이트 세라믹 화병에 존 데라니의 'Paris' 일러스트를 입힌 화병 68인원대 이스타드 빌라트, 문의 02-793-7098 감각적인 그린 컬러를 입은 P4 3-2 테이블 조명 2백만원대 루이스폴센, 문의 02-6462-6262 가족과 금슬을 얻은 틸리토 빛과 그림자가 끊임없이 아우러져 한 빛의 향연을 만드는 아틀리에 20의 스키아렐 램프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수채 그래픽을 응용한 스텝두 로소의 프린트 미러 라운드 1백20인원 프라친한센, 문의 02-6941-1128 아트 글라스 오브제 오보트 바드 토이카미 알로, 115x110mm, 48인원 이베라, 문의 02-749-2002 에디터 야우이

color Effect

테크니컬한 면모를 넘어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포인트 액세서리가 될 컬러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까르띠에 파사드 까르띠에 워치** 까르띠에 최고의 방수 워치로 이룬바위숫자 인덱스와 독특한 스크루다운 크라운 디자인 등 역동적이고 유니섹스적 요소를 담아 한층 더 감성을 선사한다. 지름 35mm에 오토매틱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1847 MC 칼리버로 구동하며, 기존 스틸 스트랩에서 다양한 컬러의 엘라기터 가죽 세간드 스트랩으로 교체 가능하다. 8백만원대. 문의 1566-7277

IWC 다 빈치 오토매틱 36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5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라운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상큼함을 부여하는 라즈베리 컬러의 엘라기터 레드 스트랩을 매치한 워치. 독특한 반원형 크라운과 6시 방향의 라운드 날짜창은 스킨 워치의 우아함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1천3백90만원. 문의 02-3440-5876

쇼파드 임페리얼 칼렉션 워치 비비드한 컬러감의 그린 다이얼과 엘라기터 가죽까지, 록에 포인트를 줄 액세서리로 충분한 워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18K 로즈 골드 케이스와 로마숫자로 표기된 인덱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2천1백79만원. 문의 02-6905-3390

타파니 이블라스 2 핸즈 워치 타파니 뉴욕 본사 외부에 설치된 청동 시계의 로마숫자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아이코닉한 칼렉션의 워치. 세련된 메탈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아이스 블루 다이얼을 매치해 모던한 룩을 완성했다. 케이스 지름은 29mm이며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블가리 루체아 베젤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지름 33mm 케이스에 카보숑 컷 인조 루블라이트와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크라운이 돋보이는 모델. 은은하고 요란 덜 블루 다이얼과 엘라기터 브레이슬릿이 매력을 더한다. 1천3백만원대. 문의 02-2066-0171

블랑팡 레이디버드 칼렉션 여성의 우아함과 매력적인 컬러를 모두 담은 주얼리 워치. 지름 34.9mm의 은은한 레드 골드 케이스에 27캐럿이 넘는 59개의 다이아몬드를 베젤뿐 아니라 리그와 크라운에 세팅했으며, 은은한 화이트 머더 오브발 다이얼로 극강의 고급스러움을 부여했다. 3천4백만원. 문의 02-3467-8426

에어 르클트르 라베로스 클러시 마디엄 듀에르 모던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스퀘어 프레임 케이스에 한층 더된 더블 루 엘라기터 스트랩을 매치해 세련된 감성을 더했다. 베젤 위아래로 장식한 두 줄의 다이아몬드는 이쁘다고 스타일 코드를 아름답게 재현한다. 화이트와 딥 블루, 두 가지 다이얼로 룩에 따라 원하는 컬러로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1천3백90만원대. 문의 1670-1833 에디터 **성정민**

Daily Chic

간결함과 우아함의 미학,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모던 밴드 링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쇼파드 아이스 큐브 링** 반듯하게 각진 얼음 조각을 모티브로 도화적인 분위기를 그려내는 이 제품은 로즈 골드 제작했다. 각 큐브가 이어진 밴드는 심플해 보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색다른 빛을 발하는 다채로운 매력을 겸비했다. 1백20만원. 문의 02-6905-3390

블가리 비데로원 뉴 웨이브 3 밴드 링 로마의 장엄한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얻은 대담한 나선 모티브 디자인이 특징이다. 로즈 골드 소재로 제작했으며, 가장자리 세미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우아함을 한껏 살렸다. 5백만원대. 문의 02-6105-2120

부쉐론 라보르 화이트 스톤 링 그로링, 더들 고드롬, 클루드 파리 등 파리의 네 가지 건축학적 코드를 담은 링을 결합한 디자인. 옐로·화이트·핑크 골드와 함께 부쉐론 고유의 특별 공법으로 제작한 화이트 하이 세라믹의 조화가 우아한 면모와 개성을 드러낸다. 5백만원대. 문의 02-772-3508

타파니 T 1 바켓 컷 와이드 링 브랜드의 아이콘 T 모티브를 형상화한 모던하고 대담한 디자인 코드가 특징이다. 로즈 골드 보드에 바켓 컷 다이아몬드를 하모니 세팅해 은은한 광채를 발한다. 1천1백95만원. 문의 02-6250-8620

파이제 포제션 오픈 링 핑크 골드 오픈 링의 양쪽 끝에 장식한 2개의 환형하는 다이아몬드 세팅 밴드와 카보숑 컷 레드 카블라언이 경쾌하게 빛나며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4백1만원대. 문의 1688-1874

프래드 포스텐 링 용기와 자신감을 상징하는 산책의 카라비너 모양의 클래스트 디자인이 특징인 모던 캐주얼 주얼리. 비블 모티브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7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해 포인트로 착용하기 좋다. 4백만원. 문의 02-514-3721

쇼페 리앙 에비타스 웨딩 밴드 반지 중앙에 연결된 리본 모티브가 고급과 나눔을 상징하며 특별한 유대 관계를 의미하는 리앙 칼렉션. 18K 로즈 골드 제작한 매끈한 링 중앙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심세하게 세팅했다. 2백54만원. 문의 02-3444-3559 에디터 **이주이**



GIFT IDEAS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계절 5월, 감도 높은 취향을 지닌 소중한 이들을 위한 아름답고 특별한 기프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에프디 셀렉션, 아우저이 이스타트먼트 진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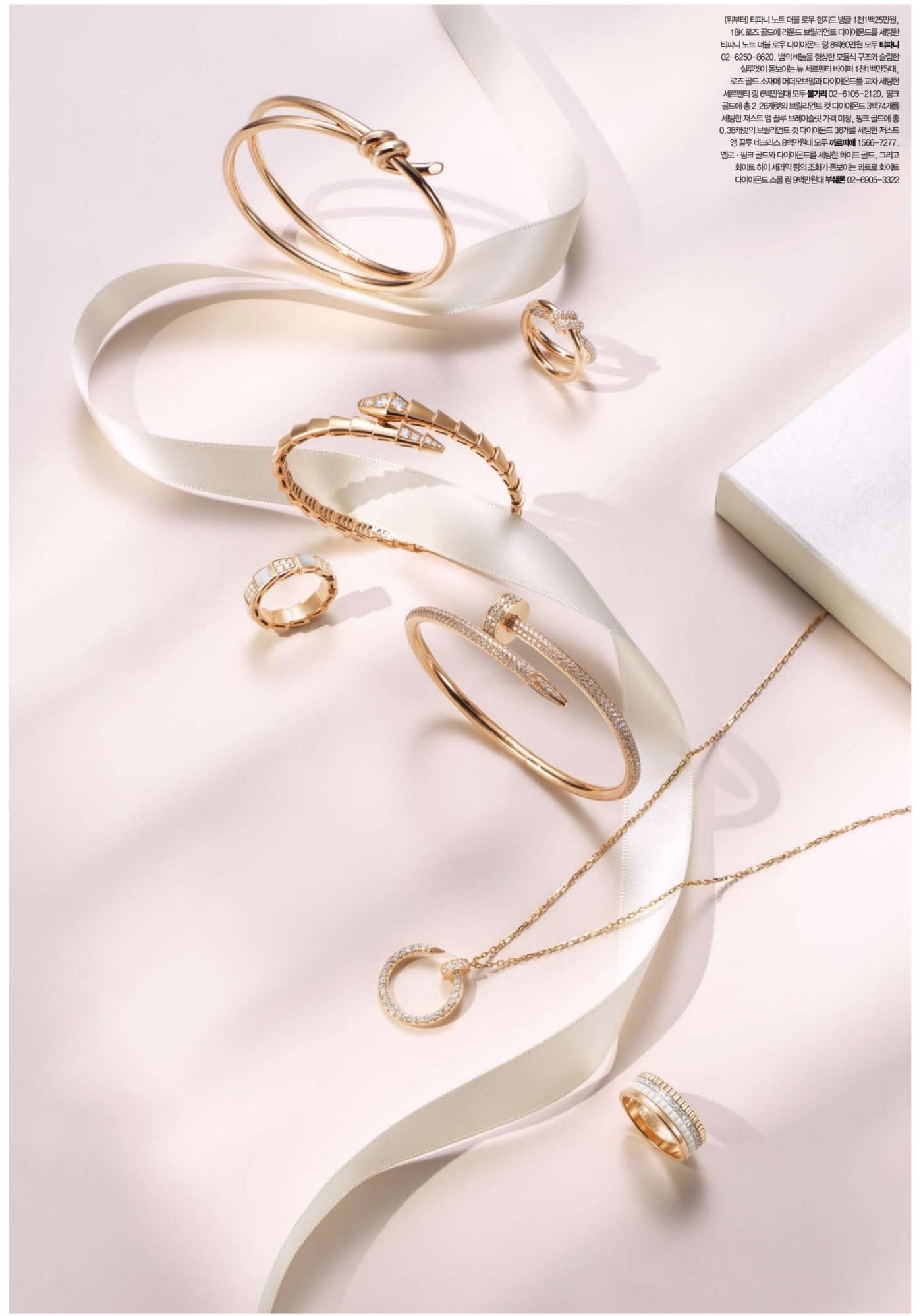
FRED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아이코닉한 하트 모티프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프러티 우먼 스몰 네크리스 3백74만원, 머더오브펠과 다이아몬드를 조합한 맨던트와 알라카이트를 메인 스톤으로 한 맨던트가 양편을 이뤄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한 프러티 우먼 하트스톤 미디엄 네크리스 3백67만원, 머더오브펠로 장식한 핑크 골드 플레이트에 행운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세팅의 램-스케이프 모티프를 올린 상스 인피니티 링 9백77만원, 우아한 로고 인그레이빙과 다이아몬드 세팅이 돋보이는 프러드 포라브 워딩 밴드 1백38만원, 심장을 상징하는 루비를 밴드 인쪽에 세팅해 특별한 프러드 포라브 워딩 밴드 2백49만원, 볼드한 핑크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램-스케이프 모티프를 올린 상스 인피니티 링 9백18만원,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다이아몬드 볼 파베 세팅의 핑크 골드 상스 인피니티 링 미디엄 모티프 1만원, 세일링 케이틀과 오토의 사를을 모티브로 한 버클을 조합한 캐주얼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지루, 성취, 용기를 상징하는 포스텐 브레이슬릿 셀렉션, 핑크 골드 XL 버클을 조합해 대담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포스텐 XL 브레이슬릿 2백8백74만원, 로즈 우드 케이틀과 다이아몬드를 하프 파베 세팅한 핑크 골드 버클의 조합이 돋보이는 포스텐 브레이슬릿 8백55만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버클과 브레이슬릿으로 우아함을 배가한 포스텐 브레이슬릿 2천1백39만원 모두 **프러드**, 문의 02-514-3721

(왼쪽부터 차례대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와 사이드 골드 바즈가 눈부신 조화를 이루는 **베를리** 다이아몬드 링 1천2백25만원
반 클리프 아펠 1668-1906. 행과과 줄거움을 상징하는 4개의 꽃잎을 형상화한 피오레버 컬렉션. 로즈 골드 펜던트에 약 0.37캐럿의 메인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총 0.3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네크리스** 1천2백25만원
 리운드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브라이슬릿** 1천2백25만원
 모두 **불가리** 02-6105-2120,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브라운 다이아몬드의 조합이 돋보이는 미모사 핑크 골드 **브라이슬릿**, 미모사 핑크 골드 다이아 **원로우** 링 모두 가격 미정 **다이아니** 02-3213-2141
 아르베스크 양식에서 영감을 얻은 아국적인 모티브가 특징으로, 다이아몬드와 핑크 오パール을 세팅한 **임페리얼** 링 7백30만원 **소파드** 02-6905-3390



(위부터) **타피니** 노트 더블 로우 한자드 핑크 1천1백25만원, 18K 로즈 골드 에 리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타피니** 노트 더블 로우 다이아몬드 링 9백60만원 모두 **타피니** 02-6250-9620, 벨의 비늘을 형상화한 모듈식 구조와 슬림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뉴 세라핀티** 바이퍼 1천1백25만원
 로즈 골드 스테이머 디오브링과 다이아몬드를 교차 세팅한 **세라핀티** 링 9백25만원 모두 **불가리** 02-6105-2120, 핑크 골드 에 총 2.26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백74캐럿을 세팅한 **자스트** 영 글루 **브라이슬릿** 가격 미정, 핑크 골드 에 총 0.38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67캐럿을 세팅한 **자스트** 영 글루 **네크리스** 9백25만원 모두 **카르띠에** 1566-7277, 옐로, 핑크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그리고 화이트 하이 세라핀티 링의 조합이 돋보이는 **파드르** 화이트 다이아몬드 스몰 링 9백25만원 **부세넬** 02-6905-3322



(위부터) 장미를 표현한 입체적인 디자인이 특징인 **라 로즈** 다울 컬렉션. 핑크 골드를 바탕으로 0.35캐럿 다이아몬드를 중앙에 세팅한 **로즈** 다울 **구투르** 링, 장미 냉골을 형상화한 **브야드** 로즈 링 모두 가격 미정
다울 **주얼리** 02-3480-0104 상징적인 **펠트** **파넬**이 돋보이는 **베이지** 골드 밴드를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코코** **크리시** 스몰 링 9백40만원, 미니 사이즈 **화이트** 골드 **코코** **크리시** 링 1백89만원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080-805-9628, chanel.com



OMEGA

(왼쪽부터) 항자성 기술의 혁명으로 불리는 METAS 인증의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1을 탑재했다. 18K 옐로 골드 케이스와 올리브 레더 스트랩의 조합으로 선보이는 컨스텔레이션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9MM 2천9백만원대, 그린 아벤추린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베젤의 조합으로 우아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델. 5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탁월한 항자성과 정확성을 갖춘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700을 장착한 컨스텔레이션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29MM 1천7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02-6905-3301

(오른쪽부터) 블루 새틴 배젤과 리무드매달 로만 인덱스, 블루 새틴 다이얼의 조합이 도화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모델. 러버 라이닝 차폐한 블루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완성했다. 투명한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타임존 기능과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0의 정교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컨스텔레이션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41MM 9백만원대, 매력적인 셀레스티얼 블루 다이얼에 18K 화이트 골드 인덱스를 올리고, 배젤에 다이얼 컬러와 동일한 색으로 로마숫자를 새겨 줄라들을 다룬 컨스텔레이션 쿼츠 28MM, 오메가 칼리버 4061로 구동하며, 케이스 백에는 컨스텔레이션 천문대 메달리온을 새겨 오메가의 정확도 관련 기록과 업적을 기념한다. 3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02-6905-3301





(위부터 차례대로) 18K 로즈 골드 케이스와 다이아몬드 베젤, 화이트 마더오브펄 다이얼의 우아한 조합이 돋보이는 모델. 베젤에 두른 다이얼에 개별 번호를 새겨 특별한 아름다움을 더한 브레게 미린 달모 9518 4천3백만원 **브레게** 02-3479-1008. 독수리 눈의 총채를 모티브로 한 베르나니 그레이 다이얼이 강한 현대 남성의 모습을 그리는 알파인 이글 41MM 3천1백33만원 **스피드** 02-6905-3390. 다이아몬드를 풀 파헤쳐 세팅한 다이얼과 골드 케이스, 브라운 사틴 스트랩의 조합으로 잔구하고 우아한 모습을 표현한 모델. 문패이즈를 갖춘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무브먼트 1088로 구동한다. 8천5백만원 **비세몬 콘스탄틴** 1670-4606. 무려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칼리버 1151로 구동하는 모델. 깨끗한 화이트 다이얼 위에 로마자,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올리고 3시 방향에 작은 날짜창을 더했다.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과 다데일로 잠재된 미학을 보여주는 발레리 올트라 슬림 3천1백43만원 **발레리** 02-3467-8426. 유려한 곡선과 감각적인 주얼 세팅이 돋보이는 라일라이트 길라 32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6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18K 핑크 골드 말라이즈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하이엔드의 품격을 드러낸다. 베젤에도 0.01카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아한 품격을 드러낸다. 5천9백50만원 **피에레** 1668-1874



(위부터) 직사각형 케이스와 로마자 인덱스가 아이코닉한 문진 돌체비타. 상하 플란케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베젤을 두른 스틸 케이스, 화이트 알라게이터 스트랩의 조합으로 순수하고 우아한 모습을 표현했다. 4백40만원 **문진** 02-3479-1940 말린장에서 영감을 얻은 스틸 모양의 블랙 알라게이터 스트랩으로 세련된 도시 여성의 이미지를 선사하는 미니 다이아몬드 스틸 스타릴 워치 (백만원대) **말프 로렌 워치 & 피인 주얼리** 02-3467-6560. 파리 방돔 광장에서 영감을 얻은 팔각형 케이스와 사철의 아이코닉한 2.56 백의 체인에서 영감을 얻은 체인 브레이슬릿으로 우아한 면모를 지닌 프리미에르 워치 5백62만원 **사철 워치** 080-805-9628, chanel.com



(왼쪽부터) 지름 44mm의 대담한 케이스와 3개의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타카미터 베젤 등의 요소로 모터 레이싱의 다이내믹한 스피드를 담아냈다.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인화우스 칼리버 호이머 02 오토매틱으로 구동하는 캐러라 호이머 02 스포츠 크로노그래프 7백56만원 **태그호이어** 02-548-6021. 마더오브펄 다이얼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다이아몬드가 활기 차고 7분 좋은 예너지를 전한다. 해피 스포츠 36MM 1천5백99만원 **스피드** 02-6905-3390. 모던 레트로로 디자인으로 스포티하고 클래식하게 즐길 수 있는 모델. COSC 인증을 받은 크로노미터 브레이슬릿 칼리버 10으로 구동하는 크로노셋 오토매틱 36 1천5백90만원 **브라이틀링** 02-792-4371



RALPH LAUREN COLLECTION

부드럽고 내구성 좋은 카프 스킨과 캔버스를 결합한 소재로 밝고 캐주얼한 무드를 지어내는 웰링턴 숄더백
2백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02-3467-6560



(유류터 차폐재로) 비비드한 핑크 컬러의 해비 그래픽 소재 반지갑 38만원 **엘비비** 02-2018-1439, 시그니처 자수로 장식한 블랙 밴드 디테일이 돋보이는 우아하고 모던한 무드의 모자 1백36만원 **디올** 02-3480-0104, 맞춤형 인셋이 가능한 특수 기술로 제작한 리본 프린트가 특징인 핑크 슈즈 1백34만원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세미 캔 아이 프라임으로 세련된 무드를 자아내는 코랄 컬러 선글라스 가격 미정 **셀윈노** 02-549-6631 매력적인 베이비 핑크 컬러의 사니니 카프 스킨 소재에 골드 메탈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 미정 **사셀** 080-805-9628, chanel.com, 사랑스러운 리본 장식이 돋보이는 송이자기족 소재의 바리나 캄프스 90만원대 **십비토레 파라카모** 02-3430-7854, 컬러 배리어(산이) 상큼한 레커우드 소재의 퓨전 컬렉션 브라이슬릿 30만원대 **에르메스** 02-542-6622



(유류터 차폐재로) 투명한 플렉시 글라스 소재로 옐로 컬러 그래픽 선 효과와 스웨이 플랩, 마그네틱 FF 클래스트가 특징인 바게트 트럼프 미니 백 99만원대 **켄디** 02-514-0652, 매력적인 유광 블루 컬러에 모던한 세이프와 다양한 포켓 디자인 등으로 실용성을 높인 익스트림 2.0 글로시 레더 언벨로프 백 1백30만원 **홍남양** 1670-4810



(유류터 차폐재로) 카키 그로그렘 벨트 디테일이 돋보이는 아이보리 펠트 소재의 카우보이 햇 1백14만원 **구찌** 02-3452-1921, 은은한 옐로 카스티드 컬러와 수직립으로 완성한 스타칭 디테일이 고급스러운 무드를 주는 실크 느낌 누백 소재의 꼬마노 드라이벌 슈즈 76만원 **토즈** 02-3438-6008



(유류터 시계 방향) 모노그램 캔버스로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스무스 카프 스킨 소재의 르 모노그램 크로스 피우치 1백만원대 **성 로랑 바이 인토니 비카렐로** 02-6905-3924, 인감 없는 100% 스웨이드 송이자기족으로 제작한 에스피드드림으로 가벼운 무게감이 특징이다, 88만원 **로로 피아나** 02-546-0615, 달라베 가족과 스웨이드의 조화로 가벼우면서도 편안하며 클래식한 느낌을 보트 슈즈 1백37만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331



(유류터 시계 방향) 모노그램 캔버스로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스무스 카프 스킨 소재의 르 모노그램 크로스 피우치 1백만원대 **성 로랑 바이 인토니 비카렐로** 02-6905-3924, 인감 없는 100% 스웨이드 송이자기족으로 제작한 에스피드드림으로 가벼운 무게감이 특징이다, 88만원 **로로 피아나** 02-546-0615, 달라베 가족과 스웨이드의 조화로 가벼우면서도 편안하며 클래식한 느낌을 보트 슈즈 1백37만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331



PENHALIGON'S

(왼쪽부터 차례대로) **아르테미시아 EDP** 르네상스 시대 유명 여성 화가 아르테미시아를 모티브로 했으며 꽃잎처럼 고귀하고 매혹적인 향을 담았다. 부드럽고 섬세한 카리웨이 잎이 함께 내뿜는 향으로 시차해 청신함과 넉넉함에 바이올렛을 더한 재스민 티 향으로 마무리된다. 100ml 27만원, **루나 EDT**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에서 이름을 따온 향수로 밤하늘에 선명하게 빛나는 달빛처럼 밝은 시트러스 노트로 시작해 플로럴과 그린으로 싱그러움을 더하며 부드럽게 마무리되며 따뜻한 느낌을 준다. 100ml 27만원, **엘리자베탄 로즈 EDP** 영국의 유서 깊은 두 가문,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의 상징인 흰 장미와 빨간 장미를 조화롭게 섞은 듯한 향으로 1984년 탄생한 펜할리곤스 향수를 재해석했다. 고전적이고 클래식한 장미의 향을 매력적으로 담았다. 100ml 27만원, **쥘리엥 슬링 EDT** 런던을 상징하는 술, 드라이 잔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향수로 차갑고 투명한 알데이드 같은 인텔리전스와 브랜디에 진 특유의 특 쓰는 느낌을 주는 흑후추, 카다멈, 가죽, 그리고 오리스를 더해 개성 있고 깔끔한 라테일 향전을 마신 듯한 느낌을 준다. 100ml 27만원, **엔드미온 콘상트레 EDP**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향기로 시트러스 계열의 향조와 스파이스, 그리고 레더가 아우러진 부드럽고 달콤한 남성향의 향을 담았다. 세이저에 둘러싸인 만다린과 진한 커피 향에 라벤더의 부드러운 향기가 살짝 스며드는 느낌으로 부드럽고 센수얼한 분위기를 부여한다. 100ml 27만원 모두 **펜할리곤스 080-363-5454**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베중 마르자엘라 레플리카 레이저 섀데이 모닝 샤워 겔** 레플리카의 아이코닉한 레이저 섀데이 모닝 향을 담은 샤워 겔로 부드러운 거품이 피부를 맑고하게 세정하며 은은한 향기를 남긴다. 30ml 3만8천원 080-363-5454, **샤넬 레 조 드 샤넬 피라-피리** 우아한 매력을 지닌 스프레이 향연사도. 상쾌한 장미 향으로 피라-피리의 유니크하고 매력적인 스타일을 연상시킨다. 125ml 20만3천원 080-332-2700, www.chanel.com, **에스티 로더 드림 더스크** 봄꽃의 풍성한 향기를 담은 체리 블러섬 향조가 상쾌한 블랙가운트 세탁 내용과 블렌딩하여 해질 녘 마법 같은 비밀의 정원을 상기 시키는 향수 100ml 24만5천원 02-6971-3212 **보이레 메테에 드 보이레 푸르르 모노 302 크레쉬스쿨** 부드럽고 촉촉한 크림 피우더 텍스처와 투명하고 미세한 펄 피우더가 피부에 우아한 광채를 부여하는 블러셔 8g 12만원 02-310-5025, **다음 프레스티지 라 마이브로 힐드 로즈 어드밴스드 세럼** 로즈 바이탈 수액을 한 알 한 알 고농축해서 담은 1만여 개 로즈 마이크로 캡슐이 오일의 풍부함과 세럼의 흡수력을 향상시켜 놀라운 리바이탈라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50ml 47만원 080-342-9500 **톨 포트 뷰티 로즈 프리 미니 디펜더 & 세라미 세트** 미지 이상 장미 꽃디펜을 한 아름 안은 듯 세수할만 향의 미니처 로즈 프리 향수와 오브제 겸 디퓨저로 즐길 수 있는 세라미 세트 12ml 12만원 02-6971-3211



ESTÉE LAUDER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멀티-리커버리 콤플렉스. 단순히 화장품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은 피부까지 선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프트. 에스티 로더 스타디셀러, 갈색병, 혁신적인 기술과 획기적인 테크놀로지로 탄생한 갈색병은 3주 안에 피부에 강력한 에-피 차원을 제공*한다. 50ml 15만7천원 02-6971-3212

*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콤플렉스 4주 사용 대비, 70%차 있음.

Step in style

더 가볍고 쿨해진 발걸음을 위한 브랜드 뉴 로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상큼한 스카이 블루 컬러에 아이코닉한 태슬로 포인트를 준 스웨이드 고트 스킨 소재의 로퍼 1백4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3015-3248, 클래식한 대비 슈즈 디자인의 브라운 컬러가 매력적인 로퍼로 창기 술로 영하고 쿨한 무드를 더했다. 99만원 **셀빈느**, 문의 02-549-6631, 온온한 베이퍼색에 시그처 리본으로 포인트를 준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 소재 로퍼 1백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남성 슈즈에서 영감을 받은 두꺼운 플랫폼 스타일 밑창과 슈즈 전면에 스테칭 포인트가 우아하고 클래식한 매력을 선사하는 비브고 톱 메탈 버클 로퍼 1백59만원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시그처 루이 비통 로고 장식과 골드 버클이 매력적인 로퍼로 높은 굽으로 마무리해 예지 있는 감성을 전한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글로시한 페이퍼트 소재로 록에 포인트를 주면서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어떤 의상에나 잘 어울리는 청키한 로퍼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에디터 **성정민**



fresh Ladies

클래식한 록에 빠질 수 없는 펜디의 피카부 아이씨유 백이 색다른 변신으로 우리를 즐겁게 한다. 부드러운 패딩 나파 가죽으로 기존의 시그너처 스타일을 그대로 간직한 채 뽀피와 마이크로 사이즈로 더 작아진 모습과 파스텔, 비비드한 컬러 등 여름을 담은 컬러 팔레트로 유쾌함을 표현했다. 더 다채로워진 피카부 아이씨유 백으로 S/S 록에 포인트 더하기.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차례대로) 파스텔 옐로 그린 컬러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한쪽을 분리해 착용도 사용 가능한 피카부 아이씨유 마이크로 백 2백만원대, 귀여운 사이즈에 탈착 가능한 스트랩, 적당한 수납공간까지 갖춰 실용성을 높인 파스텔컬러 피카부 아이씨유 백 4백만원대 모두 **펜디**, 에디터 **성정민**

(왼쪽부터) 코트,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드레스 3백만원대. 셀 로랑 by 인모나 1백만원, 신들 가격 미정. 폴세르가사나, 패티 셔츠 1백40만원, 쇼츠 1백10만원, 백 가격 미정 모두 로아베, 드레스 1백50만원대. 토츠, 롱 가격 미정. 자형시, 롱 가격 미정. 자형시, 쇼츠 80만원. 로아베.



(왼쪽부터) 패티 셔츠 가격 미정, 쇼츠 1백만원대, 스니커즈 1백만원대 모두 로아베, 자형, 토츠, 신들 가격 미정. 폴세르가사나, 패티 셔츠 1백40만원, 드레스 2백만원대, 신들 가격 미정. 모두 로아베, 드레스 2백100만원. 로아베, 롱 2백20만원. 로아베, 자형, 셔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쇼츠 50만원대. 토츠, 슈츠 가격 미정. 자형, 슈, 톱, 드레스, 롱 모두 가격 미정. 로아베.





(왼쪽부터) 드리스 케버니언, 폴렛 셀러 가역 미영, 핑클 1백만엔의 모두 상 롱 by 안토니 마가렐로, 드리스 가역 미영 포츠 1961, 폴렛 셀러 가역 미영 핑클 가역 미영 셀 롱 by 안토니 마가렐로, 이니 배 가역 미영 프라다, 톰 가역 미영 후디 네싱, 톰 가역 미영 조르조 아르마니, 팜송 가역 미영 쉐넬, 옴 by 아디 슐리먼, 니콜라스 가역 미영 톰메가베니, 피론 드리스 2억10만엔의 톰, 팜송 셀러 1백만엔의 구찌.



(오른쪽부터) 제이 4억10만엔, 핑클 2억10만엔 모두 포츠에, 드리스 1백만엔의 샤페이 레미가모, 시츠 1백68엔의 레깅스 1백21엔의 모두 구찌, 폴렛루스, 쇼트 모두 미영 셀러, 미유치 가역 미영 포츠에, 배티 시츠 396086엔, 쇼츠 346086엔 모두 핑클 가역 by hansyle.com, 제이 1백23엔, 톰 1억17만엔, 쇼츠 97만엔 모두 포츠가모.

Ace of Base

밀착력과 커버력, 지속력은 물론 스킨케어 효과와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한 뉴 쿠션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찌 뷰티 쿠션 드 보메 #03** 블랙 로즈 오일의 영감과 수분 가득 담은 안티에이징 쿠션, 기법도 보습감이 뛰어나 몇 번을 덧칠해도 내 피부처럼 얇게 밀착되고, 피부 깊숙한 곳까지 촉촉해지는 듯한 느낌이다. 루미나스 피운데이션 효과로 피부 표면의 생기를 강조하고 결점을 가려 완벽한 베이스 연출을 돕는다. SPF 22의 자외선 차단 기능도 갖췄다. 14g 8919천원. 문의 080-850-0708

클레드보 보메 라디안트 쿠션 피운데이션 내추럴 SPF 25/ PA+++ #B10 워터 세럼 같은 기법도 촉촉한 텍스처로 모공과 요철을 빈틈없이 커버하고, 로즈메리 잎에서 추출한 성분을 추가해 얼굴에서 건강한 윤기가 흐른다. 독자적인 메이크업 테크놀로지 라이트 임 파우링 인핸서 기술이 피부 표면의 빛을 반사시켜 투명한 광채가 살아난다. 14g 11만 5천원대. 문의 080-564-7700

YSL 뷰티 푸쉬 에클라 뉴 메쉬 핑크 쿠션 #B25 SPF 50+/ PA++++ 자외선 차단 기능과 전체 성분 중 스킨케어 성분이 55%를 차지하는 데에 촉촉하고 시원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얇게 피팅되는 가벼운 워터 베이스 포뮬러로 수분을 머금은 듯 바르는 즉시 얼굴에 맑은 광채를 더하고, 들뜨지 않고 촉촉한 마무리가 가능하다. 보습과 클링의 지속력을 업그레이드해줄 마이크로 메시 필터를 적용했다. 12g 9만 4천원. 문의 080-835-0089

바버리 얼티밋 글로우 쿠션 #30 라이트 뉴트럴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백차 추출물로 완성한 안티에이징 쿠션 팩트. 허알루론산과 제비꽃 추출물을 함유한 스킨케어 성분이 수분을 증진하고 피부결을 부드럽게 관리해준다. 촉촉함이 하루 종일 지속되며, 잡티 없이 건강한 윤기가 감도는 피부 표현에 제격이다. 14g 8만 5천원. 문의 080-850-0708

시슬리 워터 블랑 르 쿠션 SPF 50+ / PA++++ #0C 바닐라 다크 스팟 커버와 톤업 효과가 확실한 쿠션. 수분을 머금은 듯 실크한 텍스처가 바르는 즉시 얼굴에 맑은 광채를 더한다.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어 광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항산화 기능이 탁월한 메릴리 추출물과 바타핀 D 아세테이트 등 주요 성분들이 신화 스트레스와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데도 효과적이다. 가볍게 수시로 덧바를 수 있어 완벽한 커버력을 자랑한다. 15g 14만 5천원. 문의 080-549-0216

샤넬 울트라 르 뱅 쿠션 #BD21 메시와 스킨케어 결합한 더블 레이어 파우더로 양 조성이 쉽고, 실크한 에펠타 텍스처가 섬세하게 발려 가볍게 밀착된다. 루미나스 매트 피니싱으로 번들거림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타입. 물기와 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와 스웨트프루프 효과 덕에 시간이 지나도 무너짐 없이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유지한다. 9g 8만 6천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에디터 **이유미**

summer garden

뿌리는 것만으로도 상쾌함과 시원한 기분을 즐길 수 있는 시트러스 향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에스앤디가 이탈리아인 시트러스** 이탈리아 해안의 시트러스, 차노트를 다한 향수로 깨끗한 느낌을 주는 머스크 향이 일품이다. 50ml 22만 9천원. 문의 02-6905-3353

구찌 뷰티 알파미스트 기온 1921 EDP 구찌 탄생 1백 주년을 기념하는 향수. 네롤리꽃 향을 베이스로 하며, 피렌체 지방의 리모네 체르토티의 과실 향을 블렌딩했다. 1세기 전 구찌와 함께한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에 헌정하는 향수로 구찌 하우스의 현대적미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향수로 표현했다. 100ml 44만원. 문의 080-850-0708

톨포드 뷰티 네롤리 포르토피노 EDP 시원한 비린과 반짝이는 투명한 바다, 그리고 풍성한 이탈리아 리에베라의 나뭇잎을 완벽히 재현한 향. 상쾌한 시트러스 오일과 플로럴 노트, 앰버 향이 매력적이면서도 잔잔한 진정을 선사한다. 50ml 33만 9천원. 문의 02-6971-3211

루이 비통 라퀴스 가든 이국적인 피티오의 시원하고 실크한 감성을 담은 향수로 수석 조형사 자크 카발리에 벨투뤼가 첫원의 한 종류인 마테를 바탕으로 말리우림의 분위기를 담았다. 강렬하고 매혹적인 칼라브리아 베르가모트와 톱 스톤의 듯 생기 넘치는 레몬그라스가 조화를 이룬다. 100ml 가격 미정. 문의 02-3432-1854

앤할리곤스 블렌하이프 부케 EDT 알콩하게 재단한 흰 셔츠를 연상시키는 깨끗하면서도 프레시한 향으로 감귤류 오일과 향신료, 나무 등을 조합해 한낮의 상쾌함이 담긴 작태일 같은 다채로운 매력의 향기를 선사한다. 100ml 19만 4천원. 문의 080-363-5454

르 라보 시트루즈 28 짙고하고 빠르게 돌아오는 도시, 서울에 헌정하는 향수로 풍부한 시트러스 향에 순수하고 잔잔 레몬향을 더했다. 여기에 특별함을 부여하기 위해 시더와 머스크에 레몬, 진저, 재스민을 혼합해 독특하고 개성 있는 향을 완성했다. 100ml 63만 원대. 문의 02-6971-3204

샤넬 레 조 드 샤넬 피라-비아리츠 기브라델 사냥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 컬렉션 중 하나로 사교계와 관광지로 유명한 비아리츠를 표현했다. 활기차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도시를 표현하기 위해 은방울꽃, 화이트 머스크 등 다양한 노트에 시트러스를 조합해 햇살 가득한 날 바다에 뛰어드는 것 같은 신상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준다. 125ml 20만 3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에디터 **성정민**

editor's Pick

싱그러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산뜻하고 촉촉한 뷰티템 13,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찌 뷰티 루즈 아 레브르 리부트 매트 #25 글디 레드 매트 림에 대한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준 아이템 크리미한 제형으로 부드럽게 발려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데, 블랙 로즈 오일, 히알루론산, 비타민 E 인공잔을 포함한 스크리버 성분이 입술을 섬세하게 케어한다. 무건지 않은 편안함으로 번지가나 갈라지는 현상 없이 입술에 착붙! 강력한 발색력은 말릴 것도 없다. 0.5g 52만4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이지유*

프렐리 비노테라피스트 히알루론닉 나뮌싱 바디로션 은 가족이 함께 쓸 보디로션을 찾고 있던 중 만난 제품. 건성인 엄마와 지성인 아빠, 그리고 복합성인 아이들이 함께 발라도 문젠없는 데다 끈적이지 않고 오랜지 불로섬 향이 은은해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 100% 제형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한 글린 뷰티 제형이다. 200ml 3만1천원, 문의 02-6011-0212, *by 에디터 장미윤*

달바 비건 글로우핏 세럼 카피 쿠션 #23 3번을 5월달로 내 피부처럼 알고 촉촉하게 발려 원래 티고난듯 투명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쿠션. 전체 성분 중 수분이 61%를 차지하는 데에 촉촉하고 시원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칠 수 있다. 병들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진정에도 효과적. 비건 인공 및 국내 자급 타스트를 완료한 인건 피부 안심 아이템이다. 15g 4만8천원, 문의 02-332-7727, *by 에디터 이지유*

사카이도 퓨처 솔루션 LX 인피니트 트립먼트 프라이머 비라는 즉시 얼굴에 닿은 광택을 다하고 확실한 톤업 효과를 발휘하는 메이크업 베이스. 마이크로 스펀 덕에 파운데이션 밀착력도 높아준다. SPF 30/PA++의 자외선 차단 기능과 미세 먼지 등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도 갖춘 인공 아이템. 40ml 9만8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지유*

자생시 뷰티 아이메지스터블 오드 투왈렛 프라쉬 생동감 넘치고 향이로운 MZ 세대에 딱 어울리는 향. 장미를 사용해 상쾌한 것은 물론, 핑크 베르논의 소묘시 한 톤과 달콤한 오렌지향의 특색은 시트러스 노트로 빈번 매력도 실었다. 생나무의 우디한 향이 드러내며 머스크 향으로 마무리된다. 50ml 12만원,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장미윤*

시클리 울레이 얼어터 피부에 보습막을 씌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한다. 크림, 세럼, 자외선 차단제 등 그 어떤 케어제품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제품이 아닐까 싶었지만, 미세 먼지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에디터의 피부가 하루 종일 편안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걸 보니 더 신빙이 간다. 무조건 모든 제품의 마지막 단계에 사용할 것. 50ml 4만9천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장미윤*

메이크업메이커 아이유아레지스트 아이리더너 #메이크업 아이리더너를 그려낸 2~3시간 후 어김없이 그다 눈이 도아빠지는 에디터가 빈했다. 빛이 땀방울에 한방의 타르도 도정확한 선을 그릴 수 있고 발색 또한 선명하다. 여섯 가지 컬러 중 매트 우드는 친한 갈색으로 피부 톤이 밝은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완벽한 유포우루프와 울레이 해 변에서도 가드할 듯. 2ml 3만8천원, 문의 080-514-8942, *by 에디터 장미윤*

샹카이 로즈 데 메이 페이스 오일 울레이 아피니 얼굴이 건조하고 가렵아지며 촉촉해지는지 피부 영양 공급이 시급했다. 100% 자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 보호와 재생 기능을 높인 이 제품을 크림에 한 방울 떨어뜨려 섞어 버리니 즉각적으로 촉촉하고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 한 방울 담은 1천 개의 장미 꽃잎 덕분에 향도 좋다. 30ml 27만8천원, 문의 070-4370-7511, *by 에디터 장미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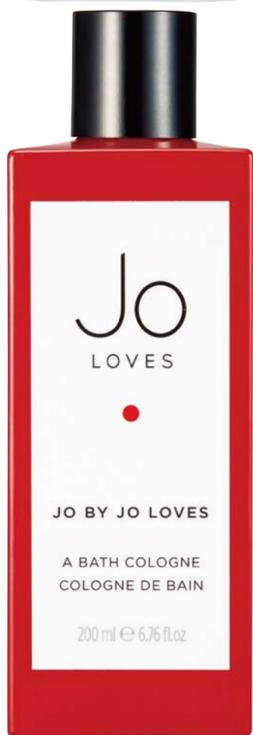
앤스티 로더 데블웨어 슈어 매트 톤 웨이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 사용하는 베이스로 피로감을 민감하게 보정해준다. 텍스처가 가볍고 보습하게 마무리되지 단 건조하거나 들뜨지 않는다. 파운데이션 대응으로도 충분한 커버력이라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다. 30ml 7만3천원, 문의 02-6971-3212, *by 에디터 장미윤*

스쿠 퓨어 컬러 블러쉬 리미티드 #130 2022 프리 서머 컬렉션 '씨글래스(Sea Glass)'의 블러셔로 평한 핑크 컬러가 보는 것보다 은은하고 부담 없는 발색이 원래 내 할까처럼 표현한다. 덧보이지 않아도 오후 늦게까지 남아 있어 자잘하게지만 족스럽다. 7.5g 6만9천원, 문의 02-3479-1621, *by 에디터 장미윤*

조리브스 조 바이 조 리브스 베스 코롬 최근 할색스한 문제로 줄기 게 된 입술 시술을 더 다듬고 줄기 게 만들어주는 아이템. 따뜻한 물에 베스 코롬을 듬뿍 부은 다음 은은한 캔들을 켜고 욕조에 들어가 있어 있으면 프루타틴 향기가 욕실까지 가득 차 특별한 향이나 피로를 썩 잊게 만들어준다. 샤워 후에도 향이 은은하게 남아 평소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마치 내 피부에서 나는 향이처럼 연출할 수 있다. 200ml 10만9천원,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장미윤*

오피신 유 비셀 블러 힐 양피피 바디 오일 #미야 0ml 게 가볍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지도 남치지 않게 영양을 주는 오일은 처음, 샤워 후 물기가 살짝 남은 피부에 바르면 빠르게 흡수되며 촉촉하고 윤기 있게 빛나는 피부로 가꿔준다. 세이지 시드 오일, 살구씨 오일 등 식물성 오일이 피부를 다독여주는 듯한 느낌. 아이리쉬와 향한 티라피오 연기 아우라적인 관능적인 향까지 만족스럽다. 190ml 8만9천원, 문의 1544-5114, *by 에디터 이지유*

브리오나 오드 파뮈 에클라 생백하고 가벼운 향으로 말쑥한 청장 차림의 신사에 게서 풍길 듯한 향기. 저용량 베이스로 한 스푼만 시트러스 노트와 장미에 파퓰리를 걸음만 블로일 노트, 그리고 샌들우드 에 마스크를 살짝 가미한 우리 향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막 사용을 마치고 나온 것처럼 깨끗한 기분을 선사한다. 공기가 온화해지는 5월부터 초여름까지 잘 어울릴 듯하다. 60ml 10만9천원, 문의 080-363-5454, *by 에디터 이지유*



SHOWROOM

FASHION



에르메스 R. M. S 수트케이스 전 세계 항공사에 반입 가능한 케인 사이즈의 R. M. S 수트케이스를 출시한다. 에르메스의 전통적인 가죽 트리밍 기술과 스키프로에서 영감을 받은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4개의 바퀴가 특징이다. 다양한 컬러와 프린트 디자인, ZIP 잠금장치의 곡선 형태에 캔버스와 가죽 소재를 사용해 유니크함과 실용성을 담았다. 문의 02-542-6622

더 액츄얼리 2022 S/S 뉴 컬렉션 Royal Weekend 미드센추리 시대의



풍경을 간직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색의 순간을 포착한 더 액츄얼리, S/S 시즌 더 액츄얼리의 뉴 룩은 낭만적인 브리오섬에서 채이 넓은 모자를 쓴 클래식한 실루엣에 폴로 경를 즐기는 스모츠웨어 요소를 더해 현대적이고 우아한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문의 0507-1422-4009

펜디 파카부 아이씨유 펜디의 유머 감각과 로마 장인 정신을 담은 파카부 아이씨유 백을 선보인다. 마이크로 백 트렌드에 발맞춰 출시한 부드러운 니파 가죽 소재의 파카부 아이씨유는 귀여운 사이즈의 프티, 참으로 사용 가능한 마이크로 사이즈로 선보이며 다채로운 여름 컬러와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크로스 보디부터 더블 백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 문의 02-514-0652



MCM 체인 리더 드로스트링 백 둥근 실루엣과 볼드한 체인 핸들 디자인이 매력적인 체인 리더 드로스트링 백을 출시한다. 버킷 백 앞면의 MCM 레퍼링 디자인, 조절 가능한 드로스트링과 가죽 스트랩으로 핸드프리트 스타일이나 볼드 체인 포인트의 액세서리 백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자유 가능한 코트 안감과 니파 가죽을 사용해 가볍고 블랙, 그린, 핑크, 37지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540-1404

토즈 T 타일리스 쇼퍼 백 2022 S/S 시즌 디테일과 실용성, 편안함에 중점을 둔 토즈 T 타일리스 쇼퍼 백을 출시한다. T 타일리스 액세서리와 곡선을 강조한 핀치드 기법으로 디테일한 요소를 담았다. T 로고가 달린 가죽 스

트랩과 버튼 달린 이너 스트랩으로 이중 여림 방식을 취하며 미니 다짐 사이즈에 카프 레더 소재의 다양한 컬러로 다채로운 스타일에 매치할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발렌티노 가리버니 데미 로만 스타드 백 특유의 쿨한 느낌을 주는 데미 소재를 활용한 로만 스타드 백을 선보인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렐라골로 피츨리가 라스트를 재해석해 대담하고 세련된 감성을 담았다. 고대 로마 공전의 건 축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벽돌 모양의 매크로 사이즈 금속 스트랩으로 장식해 테일러의 정수를 표현했다. 문의 02-2051-4653

파비아나 필리피 2022 S/S 보머 재킷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운 울을 현대적 미학으로 재해석한 파비아나 필리피에서 보머 재킷을 출시한다. 살갓이 도는 핑크 컬러와 가벼운 테피터 소재를 사용해 산뜻한 봄의 실루엣을 담았다. 집업 스타일에 모날의 장식으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실카트 드레스, 스포티한 점프수트 등 다양한 아이템과 어우러진다. 문의 02-6960-0843

BEAUTY



라프래리 LA PRAIRIE X CARLA CHAN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온 라프래리 허우스가 퓨어 골드 컬렉션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디지털 아트스트 카를라 찬과의 협업을 공개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풍경으로 생성한 NFT 작품인 'Space Beyond'를 뉴욕 프리즈 아트 페어에서 공개해 카를라 찬과 라프래리의 첫 도전을 기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라프래리는 여성 예술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며 기업 유산 확장과 더 높은 차원의 럭셔리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문의 02-511-6626

스위스퍼펙션 셀룰라 에센셜 비타민 크림 스위스퍼펙션에서 강인한 생장력을 가진 아이리스 꽃 뿌리에서 유래한 '셀룰라 에센셜 비타민' 성분은 포함된 셀룰라 에센셜 비타민 크림을 선보인다. 피부 pH 밸런스를 케어해주고 아이리쉬와 비타민 향이 나는 비타민 쿼티일을 함유해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집중적으로 케어한다. 문의 1644-4490

샤넬 레 조 샤넬 파리-파리 샤넬에서 파리 여성들의 자연스럽고 우아한 매력에 영감을 받은 레 조

드 샤넬 파리-파리를 선보인다. 파리의 테라스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아침을 연상시키는, 자연스럽고 우아한 매력을 지닌 향으로 스키아미너에서 상쾌한 장미 향을 완성한다. 햇살에 비쳐 반짝이는 모습에서 착안한 징장빛 컬러가 신선하고 상쾌한 느낌을 준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실론 투스웨이브 오랜 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취약해진 구강 위생 관리에 실론이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한다. 실론 고주파 전동 칫솔 투스웨이브는 국제 특허를 획득한 고주파 에너지를 적용해 구강 위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실론이 가정의 달을 맞아 고주파 전동 칫솔 투스웨이브를 5월 한 달간 30% 할인하고 교체용 칫솔도 2세트와 5배까지 확대 가능한 LED 가솔 실론 메이크업 미러를 증정한다. 문의 080-246-1234



타파니 블랙핑크 로제와 타파니 하드웨어 캠페인 뉴욕에서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마리오 스퀘타가 촬영한 이번 캠페인은 대담하고 정교하게 설계한 공간을 배경으로 파페 세팅한 다이아몬드 하드웨어를 선보이며 친밀하고 강렬한 매력을 발산한다. 로제는 이번 캠페인에서 타파니 시그니처 주얼리 컬렉션 중 하나인 타파니 하드웨어 블랙 타파니, 18K 로즈 골드와 다이아몬드 소재 네그로스를 착용했다. 문의 02-6250-8620

반클리프 아펠 루프 투버 울라이 비트윈 더 핑거링 빈블리프 아펠의 창의적인 정신을 담은 비트윈 더 핑거링은 컬러와 비매칭의 조화 속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옐로와 화이트 골드, 터키이즈,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우아한 나비는 사랑하는 연인을 상징하며 사랑에 대한 찬가를 보인다. 문의 1668-1906

타파니 블랙핑크 로제와 타파니 하드웨어 캠페인 뉴욕에서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마리오 스퀘타가 촬영한 이번 캠페인은 대담하고 정교하게 설계한 공간을 배경으로 파페 세팅한 다이아몬드 하드웨어를 선보이며 친밀하고 강렬한 매력을 발산한다. 로제는 이번 캠페인에서 타파니 시그니처 주얼리 컬렉션 중 하나인 타파니 하드웨어 블랙 타파니, 18K 로즈 골드와 다이아몬드 소재 네그로스를 착용했다. 문의 02-6250-8620

다. 위촉을 수유하는 10명의 주 인공은 QR코드를 불러 리터 상공래리터 기술을 통해 블록체인의 세계에서 놀라운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2-2056-0170

코발트 누도 밀키 5월 아보카도를 맞아 어머니의 사랑처럼 순수한 컬러의 주얼리 누도 밀키 쿼츠를 선보인다. 누도 밀키 누드 톤은 단독으로 착용 시 우아한 분위기를 선사하며 더더 주얼리와 레이어드했을 때는 스타일링한 연출을 돕는다. 클래식과 피티 사이즈 링, 펜던트와 이어링으로 구성된다. 문의 031-5170-2168

타사 라블리 스카어 서머 파카지 여성 베스트셀러 라블리 스카어 서머 세트를 출시한다. 1960년대 처음 출시한 라블리 스카어는 작은 다이얼의 섬세함과 대담한 스카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다. 교체 가능한 47지 다채로운 스트랩 컬러로 다양한 데일리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543-7685

파비아나 필리피

반클리프 아펠

볼가리

JEWEL & WATCH



Cartier